

지식 위주 아닌 옳고 그른 性을 교육해야

글_ 김 성 애 · 중앙여고 보건 교사

근간에 보도되고 있는 집단 성폭행에 관한 기사제목들을 살펴보면 ‘고교생 5명 이틀연속 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들, 채팅으로 만난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임신까지 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부산초등학교 3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이 연일 신문과 방송으로 또한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다.

아직도 남성우월주의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보통 이야기하는 불량한 그룹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만이 아닌, 공부 잘 하고 학급 반장까지도 했던 아이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에 더욱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동영상으로 찍고, 공개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교사들은 분노하기 이전에 답답한 심정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강간은 성욕이 아니라 폭력의 표출

강간은 성욕이라기보다는 폭력의 표출이며 남성의 힘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집단이 되면, 함께 한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생기면서 더욱 충동적이 될 수 있고, 각 개인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으로 올바른 것과 나쁜 것, 혼란스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성적으로 어필하는 광고를 하는 이유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광고의 홍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여자는 처음에는 거부해도 나중에는 더 좋아한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